



회충 감염률 40%로 매우 높아

용 태 순 · 연세의대 기생충학교실

중국 기생충관리 현지 조사를 위하여 북경에서 열린 한중의학학술대회가 끝난 바로 다음날(7월 11일) 새벽 안휘성으로 향했다. 조사팀은 각 의과대학의 기생충학교수(계명대 주종윤, 서울대 채종일, 인하대 정평림, 연세대 용태순)와 건강관리협회의 조재현 조사연구국장, 이진훈, 김석규 임상병리사로 구성되었다.

안휘성은 난징(남경)이 위치한 강소성(江蘇省)의 서쪽에 접경한 성(省)이며 큰 도시로는 상해가 가깝다. 이성의 면적은 남한보다 좀 크며, 인구는 약 6천만이고, 주로 농업지역이라고 한다.

비행기는 인접한 강소성의

난징에 안착했는데, 조사 지역의 연구소에서부터 미리 안내자가 공항까지 나와 있었다. 우 부소장과 젊은 연구원 왕(汪)이었다. 이들은 지난 해 서울에 다녀가서 이미 안면이 있었으므로 오랜 친구와 같이 반겨주었다.

汪(후에는 또다른 많은 왕씨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워터왕이라고 불렀다)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었는데 부소장과는 전혀 불가능했다.

중국은 공산주의와 문화혁명 등의 사회변화를 거치면서 세대간에 주로 배운 외국어에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워터왕은 미국에 1년정도 연수를 갔다 올 기회도 가졌으며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반

면, 부소장은 러시아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연구소까지 가는 길은 포장되어 있었으나 관리가 별로 되지 않은 낡은 길이었으며, 차내의 자리도 쿠션이 형편없었다.

우후에 위치한 안휘성혈흡충병방치연구소 및 기생충병방치연구소에 도착하여 환영을 받았다. 물론 방문하는 연구소에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니 그렇기도 하겠지만, 후에 같이 일을 해보니 사람들도 순박했고 일도 열심히 도와 주었다. 이들은 근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주어지기는 했으나, 대부분 그 인근 지방에서 태어나 별다른 이동 없이 살고 있었다.

우후는 양자강 물줄기를 따라 발전한 도시 중의 하나로 약 5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 연구소 앞은 재래시장과 유사했으며, 길은 매우 좁고, 중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자전거 행렬,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움직였다.

도착하여 점심 후 환영식을 했다. 서양사람과 달리 중국에서는 이렇게 크든 작든 공식적인 식을 많이 한다는 것이 좀 특이하게 생각되었다.

오후에 기생충검사를 위하여 대변을 수집하기로 한 마을을 방문했다. 가는 길에는 물소와 오리가 눈에 많이 띄고, 까만 돼지를 우리 밖에 놓아 키우고 있는 것이 흔히 보였다. 무덥고 습기가 많은 아열대 기후라고 여겨졌다.

동네는 우리나라의 60년대 말이나 70년대 초 정도의 시골 분위기가 아니었는가 싶다. 서울의 다가구주택과 비슷한 곳에 많은 사람이 같이 기거하고 있었다.

작은 연못 정도의 물에서 한 남자가 쌀을 씻는데, 그 옆에서는 오리가 헤엄치고, 빨래를 하고 있는 아낙네가 보였으며, 옆에는 아이가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변소는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으로 있었으며, 인분을 비료로 쓴다고 했다. 우물이 있는 집은 마을 최고의 부자 집이라고 했다.

공중 위생 상태가 이러하므로 기생충학자에게는 일할 것이 더욱 많은 것이 아닐까

하고 기쁜(?) 생각도 들었다. 우리 나라에서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너무나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생활모습이 이러하니 마치 타임캡슐을 타고 과거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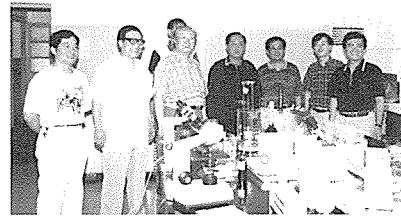
저녁에는 환영 만찬이 있었다. 식사 후에는 소위 나이트클럽에 갈 기회도 있었는데, 같이 온 연구소의 모든 중국사람이 매우 수준급의 춤을 추는데에 놀랐다.

이번 기생충 감염조사는 약 1,000 건의 대변검사 및 요충검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었으며, 각 교수들은 각자 관심있는 연구분야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된 대변검사는 오랜 만에 실컷 이러한 일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사실 기생충학을 한다고 해도 이와 같은 활동은 근래 우리 나라 어느 의과대학의 기생충학교실이나 매우 줄어들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기생충의 감염률이 떨어지면서 기생충학자들이 분자생물학이나 면역학 등 새로운 분야의 연구에 많이 치우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Kato법에 의한 총란관찰 및 총란계수, formalin-ether법에 의한 원충포낭의 관찰, 구충관찰을 위한 배양 및 관찰, 요충검사, 학생교육을 위한 총란, 포낭의 수집 등으로 나눌 간은 정신없이 바빴다. 매일 밥 먹는 시

간을 제외하고는 꼼짝않고 현미경 보기를 밤 11~12시까지 하였으며, 마지막 날 상해로 가는 기차를 타기 직전까지 이 일을 계속했다.



중국사람들도 늦게까지, 토·일요일도 없이 일했는데도 얼굴 찡그림 없이 도와주어서 고마웠다. 다만 연구소 전체에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오직 2명 밖에 없어서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없었다는 것이 아쉬웠다.

사실 연구나 조사 활동도 좋지만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서로가 직간접적으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꼭 언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이해하려는 마음자세를 통해서 그런 교류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좀 아쉬움이 남았다. 동행한 정평림교수님은 중국말에 매우 능해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을 보니 부러웠다. 중국사람들이 영어를 배워 대화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터이니, 중국에서 일하려면 다음에는 어떻게든지 중국말을 좀 익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한 통계를 이 글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었지만 회충의 감염률(약 40%)이 매우 높았다. 생각보다 십이지장충을 비롯한 다른 장내 기생충 감염률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었다. 아메바의 감염률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으나, 그렇게 지저분한 환경에서 살면서도 별로 찾아볼 수 없었다. 교과서에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과 실제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중국에는 뜨거운 차를 마시는 문화가 매우 발달했으며, 이들의 음식은 날로 먹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해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다 끓인 음식만 먹는다면 어떻게 회충 감염률이 그렇게 높을 수 있는지, 왜 이번에 조사한 지역은 대조적으로 편충의 감염률이 매우 낮은지, 아메바의 감염률은 매우 낮아도 불구하고 같은 수인성 감염을 일으키는 람블편모충의 감염은 비교적 흔한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많았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결하고, 또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되었다. 또한 이러한 기생충 문제의 해결을 중국인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같이 돕는 것이, 조금 먼저 발전한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조사하는 일정 도중에 강서성 조사팀으로 가신 한양대학 민득영 교수가 오셔서 합류했다. 연구소에서 새벽

에 떠나 먼 지역에 있는 민물개를 잡아와서 조사해 보니 폐흡충의 피낭유충이 검출되었다. 또 다른 일거리를 찾은 셈이다. 근처의 모기와 민물산 패류의 채집도 이루어져서 모든 기초적 기생충병 조사의 기본적인 자료를 이번 조사에서 얻은 셈이다.

안휘성에는 황산(黃山)이라는 세계적인 명산이 있다고 하는데 워낙 조사 일정이 바쁘다보니 다음 언젠가로 미루어야 했다. 그러나, 구화산이라는 곳을 하루 구경할 수 있었다. 이 곳은 신라의 태자였던 김교각이 수도하여 지장보살이 된 곳이라 한국인에게는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었다. 그를 그린 그림과 조각이 많이 보였다.

중국의 절은 한국처럼 주로 산 속에 있었으나, 붉은 칠이 많이 되어 있고 남방처럼 금을 입힌 거대한 불상이 많은 것이 눈에 보이는 특징이었다.

안휘성 연구조사를 마치고, 연구소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우후를 떠나 상해로 가는 기차에 올라탔다.

상해의 모습은 개항 후 발전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모습답게 활기찼다. 서울에 뒤지지 않게 한껏 멋을 낸 중국여자들의 세련된 옷차림새와 함께 곳곳에서 개발의 활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 온 상해가 공사판과 같았다. 후자의 말에 의하면 현재 중국 전체가, 벌어들여온 달러를 소화하기 위한 공사판이라고 한다.

상해에서는 나뉘었던 두 조사팀(안휘성, 강서성팀)이 함께 기생충병연구소를 방문할 수 있었다. 최근 미국 NIH의 원조로 받은 먼지도 묻지 아니한 새 고가(高價)의 실험기구들을 역시 NIH지원에 의하여 지어진 새 연구 건물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어떤 일들을 이런 정도의 기구없이 했는가 생각하니 어쨌든 이 시점에서 너무도 뒤져있는 형편의 중국을 들여다 보는 느낌이었고, 지난 수년 연구기간 동안 본 미국의 모습에 떠올라와 마음 아팠다.

물론 앞으로는 다를 것으로 전망도 하고 희망도 하지만, 또 그러기에 우리 같은 한국사람의 도움이나 협력을 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중국의 한 작은 지역에 들어가 짧은 시간을 보내고 무슨 큰 감상이 있을 수 없으나, 국제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의 기쁘고 보람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의 진전된 활동에 기대를 건다. [2]